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



제 2 회 아시아건축사 회의광경 (UIA 대표단이 동참했다.)

REPORT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by Kim, Chi Dok

머리에

1986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국가 건축사단체의 모임인 제 2회 아시아건축사회의 및 제 7회 ARCASIA 총회에 본협회 오용석 회장, 송기덕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봉수 국제위원회 간사, 이영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우성 국제위원회 간사, 조재원 국제위원회 간사, 박규영 국제위원회 간사, 임인혁 본협회사무처장 등 9명이 이사국 건축사단체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985년 11월 15일~11월 19일까지 인도의 뭍베이에서 개최되었던 ARCASIA에 제 6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사협회로서 만장일치로 회원국에 가입됨과 동시에 이사국으로 승인된 바 있다.

제 7회 ARCASIA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일행은 본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위시, 각국 건축사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나누었다.

회의 진행중 특히 오용석 회장은 3회에 걸친 의견 발표를 했으며, 송기덕 위원장은 본협회의 85~86년의 2년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총회기간중 실시되었던 제 1회 학생

잼버리 대회에는 본협회에서 주최한 제 1회 학생건축설계작품공모전에서 금상과 은상을 차지한 윤희진(연세대)군, 최병무(목원대)군을 파견, 참석시켰으며 이 두 학생은 아시아지역국가 건축전공 학생들과 5박6일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말레이시아 공과대학(I. T. M. Institute of Technology of Malaysia)에서 장래 건축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뜻깊은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벌였다. 이영일 연수위원회위원장이 학생 잼버리에서 행한 한국건축과 교육에 대한 토론은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5백여명의 각국대표가 운집한 총회석상에서 행한 <우리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비교>제하의 멀티비전 쇼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재원 국제위원회 간사는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킹톤루 건축사가 행한 <전문건축설계에 대한 현황>제하의 주제발표 뒤를 이어 우리 한국과 비교 검토하는 논제 발표를 하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본협회가 1988년도에 개최될 제 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국으로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 대표단의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의 참석성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 7차 아카시아(ARCASIA)이사국

총회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나. 제 1회 건축전공 학생 잼보리 (Jamboree) 대회에 한국학생 2명 파견.

다. <한국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의 설계측면에서의 비교 검토> 제하의 연구문을 심포지움에서 발표.

라.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의 주제 <아시아에서의 전문 설계용역 전략> 이란 제하의 각국대표 논문 발표에 참석.

마. 본협회 연수위원회 이영일 이사 참석하에 <아시아 건축과 학교교육> 에 관한 제반문제의 상호 의견교환, 우리나라 건축전문교육과정에 대한 보고문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바. <아시아 건축설계의 새로운 설계방식>이라는 주제하에 말레이시아 건축사 킵톤루씨가 <전문건축설계에 대한 현황> 제하의 논문을 발표, 본협회에서 연사 토론 심사자(panelist)로서 참여, 토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발표도 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따른 활동을 전개.

사. ARCASIA 이사국 총회 최종일, 본협회가 1988년도 제 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국으로 추천되어 각국 이사들의 승인 획득.

특히 제 3회 아시아 건축사회의를 본협회가 서울에서 개최케 된 것은 본협회를 방문한 바 있는 ARCASIA의 멘도자 회장의 강력한 추천에 의거,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안건을 찬성, 통과시키는데 기인했다. 멘도자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협회는 차기 아시아건축사회의의 개최에 대한 멘도자 회장의 조심스러운 타진을 고사했었는데, 협회의 건물, 강당, 단합된 협회조직, 가장 많은 건축사 수, 아시아지역에서 제 1회 연회비 운영, 그리고 아름다운 4 계절에 대한 동경과 한국건축물에 대한 호기심 등을 들어 한국이야말로 차기 아시아 건축사회의 개최의 최적지라고 이사국들을 부추켜 만장일치라는 찬성표를 유도해 내면서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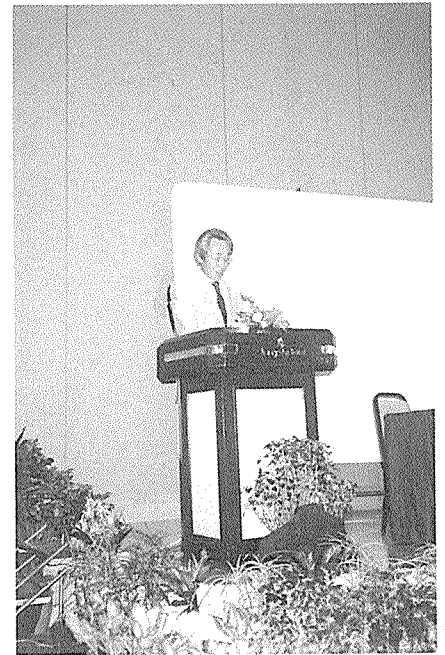
제 7 차 ARCASIA 이사회의

제 7 차 이사회의는 제 2 회 건축사

회의가 진행되기 앞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13개국의 대표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이사회의에는 우리나라 오용석 회장과 송기덕 이사를 비롯, 홍콩의 에드윈 왕 (국가공무원 건축사), 인도네시아의 아디 모이시드 (adhi moersid) 회장 등 각국 협회의 현직 회장과 국제관계 이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본 이사회의 의안은 제 6 차 때 토의된 안건의 승인을 비롯, 이미 토의하기로 각국의 회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중심이 되었다.

- a) IIA 의 제안인 Exchange of Faculty (교환교수)
- b) SIA 의 Architectural Competition (건축작품전)
- c) DR. Ken Yeang의 ARCASIA Publication(아카시아 문서발간)
- d) UAP 의 제안인 외국자본의 투자와 설계로 이루어지게 될 프로젝트의 해외 및 국내연합 콘설턴트 사업.
- e) 새회원국 입회에 대한 새규정 협의
- f) 1986년도 ARCASIA 회장 Report 검토
- g) 1986년 제 2회 건축사 회의 Forum 진행보고
- h) 각국의 건축사협회 활동 보고
- i) 각국의 건축사 업무, 건축사법, 정관, 윤리규약, 표준설계비에 대한 각국의 Data 교환
- j) 1988년도 ARCASIA 이사회 이사진 선출, 새회장 선출
- k) 제 8 차 이사회의 개최지 결정
- l) 제 3 차 아시아 건축사 총회 개최국 선정.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위원회의 회의가 따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학생 잼보리 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잼보리 건축과 학생대회에는 아시아 지역 13개국에서 학생 38명이 참가했고 성황리에 끝났다. 금번 회의도 위에 열거한 안건 모두를 아카시아 정관의 원칙에 입각, 협의 진행했다. 원래 ARCASIA 정관에 표시된 대로 아시아 지역간의 각국 건축사협회간의 우호적 지성적 예술적, 교육적 및 과학적 유대강화에 대한 일과, 회원 협회들간에 전문분야에 관한 연락, 상호협조 및 지원을 강화, 유지하는 일에 대한 협의,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축사들을 대하고, 사회에서 건축가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오용석 전회장의 한국대표 연설

있게 되도록 노력하는 일과 건축가들이 직업인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전과 교육을 촉진시키는 일과, 건축환경 부문의 연구와 기술적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원칙대로 진행되었다. 원래 ARCASIA 정관에 표시된 대로 ARCASIA 의 이사회는 각국의 회원 협회의 대표 2 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1 명은 회장 또는 그가 지명한 대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협회도 회장단의 참석이 꼭 필요했던 바이다.

본 협회는 이사국으로 등록이 된 후의 첫회의라 의의가 자못 컸었다고 생각된다.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앞서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공리에 열린 제 1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ACAI)에 이어 건축사 아시아 지역이사회(ARCASIA)의 국제 대회였다.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ARCASIA 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건축사 협회가 주최했다. ACA-2 와 동시에 ARCASIA 이사회의 도중, ARCASIA 건축교육위원회 회의, 건축사 UIA (세계건축사 연합회) 제 4 지역 국제연맹 및 영연방아시아 지역 건축사협의회 회의 등이 열려서 건축인은 이지역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했다.

아시아지역 건축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다른 다양한 문화와 사회의 출신이면서도 그들을 결속시키는 많은



ARCASIA 이사회의 광경

유사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 중에는 함께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많고 또 서방산업 사회라는 의지에서 함께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양한 변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또 발전도상국 공통의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 다른 국제적 모임들의 모범이 된 제 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서 결속과 따뜻한 친구로의 우정을 엿보게 했었던 것이다.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건축사의 영업활약성과 설계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뤘다.

전자의 주제인 아시아에서의 건축사의 직업적 활동을 위한 전략에서는 건축사가 그 기술을 연마하여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업활동에서 새롭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도, 그 궁극의 목적은 보다 낫은 건축을 창작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속 기획으로 진행됐던 논단 (ARCASIA Forum)인 아시아 건축에 있어서의 설계방향 제하의 논제는 설계에 관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들을 소개하여 검토를 받고, 소견을 듣기 위한 광장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목적을 현대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지닌 건축의 탐구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방적 특성을 지닌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건축사 모두의 대화의 장소임을 확인하는 장이 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의에서는 제 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에서(1984년 10월25일~29일) 결의됐던 국제 컨설팅 용역 계약에 대한 국제윤리 규약의 각 협회 이용에 대한 재 천명과 1985년 1월 카이로 이집트 회의때 UIA 국제회의에 정식 제안했던 보고사항의 재확인,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각국가의 차관 단체 및 국가기관에 배포하는 보고 상황에 대한 적용 및 확인 등이 있었다. U. I. A 제 4 지구 부회장인 킵투루씨도 ACA1의 결의문에 대한 사항을 1985년 UIA 카이로 대회에 정식 제출하였음을 확인했다.

이 국제 컨설팅 규약은 앞으로 있을 1987년 UIA Dublin 국제 건축사 회의에 각국의 국제관계기구가 적용하도록 UIA New Letter를 빌려서 세계 각국에 1986년 9월 2일 배포됐음을 이번 ARCASIA이사국 회의가 확인했다. 본 ARCASIA의 단체에 대하여 서울지역 건축사 회원중 일부회원이 저개발국가단체에 우리 대한건축사 협회가 가입해서 시간과 돈을 쓰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저개발국가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 그분이 계신곳을 보았다. 그러나 본인은 ARCASIA가 저개발국가의 회의가 아니라 전 세계속의 건축사 단체임을 이기회에 밝히고자한다. 우리 협회가 ARCASIA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해 온 건축사의 활동실상을 알리고 또 그들이 겪는 창작활동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문화생활과 문화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며 세계의 새로운 건축기술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속한 사회속의 역할을 재조명 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데에서 진정한 뜻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 세계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으며 우리 협회만 고립해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ARCASIA 회장은 각국의 건설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의 역할과 목적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도 이자리에서 확인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의에서 1986년 4월23일~26일의 4일간 싱가포르에서 제65차 UIA 이사국회의에서 국제컨설팅규약에 배서 (Endorsement) 했음을 확인했다. 이 문서는 UIA 4 지구 이사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세계건축가협회 (UIA) 제 4 지구와 ARCASIA의 활동과 계획등에 대하여 상호협력과 협동으로 양조직이 적극 공동협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 1985년 UIA 카이로회의에서 제안된 ARCASIA의 국제 윤리규약의 모든 문서에 UIA이사회의에서 요청된 UIA세계국가로부터의 논평에 재고할것을 확인해야하고 셋째 : 65차 UIA이사회의에 아카시아 국제컨설팅윤리규약의 제출과 승인 및 그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계속적 활동(안)에 대한것 등의 보고를들었다. 이 이사회의에서는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 코라손아키노여사에게 ARCASIA의 국제윤리규약이 필리핀 건축사 연합회에서 공식문서로 정식 제출된 보고사항도 보고받았고, 이 문서는 기술사 협회, 해외 자본 승인 국가조직(국회차관단)에게 제출되었다는 보고도 자세히 들었다. 또한 필리핀 건축사협회는 필리핀 5개의 전문용역설계 단체인 기술사 단체에게도 그 실행에 대한 촉구문서를

정식 발송,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활동 상황의 보고도 들었다.

금번 이사회의에서는 앞으로 1987년 UIA Dublin 총회에 대한 행동강령의 협의와, 아시아 국가정부에 이 국제 윤리규약의 적용 권위를 이해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했고, 세계자금용자기관에 ARCASIA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국제 윤리규약에 대해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토의를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깊이 생각, 대정부, 대국회 대유관기술사 단체에, ARCASIA에서 채택한 전문기술용역인들의 보호육성 및 한국기술자업무 보호육성을 위해서도 공식문서를 작성 제출해야될줄로 생각한다.

본 이사회의에서 아카시아 뉴스전달매체인 시사통신 (News Letter)의 보급과 출판, 각국의 건축사활동 내용의 통보등에 관한 협의도 했었다.

금번 회의에서 자유중국과 북경의 중국건축사회의 가입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이 승인된 것도 이사회의의 결과이다. 중공을 방문했던 ARCASIA회장은 중공의 DAi Nian Ci 차관과 접견하고 그곳의 국제심포시움에 참관했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중공은 아카시아가 국제적 선진기술을 보유한 단체로서 아시아의 유일한 기술 및 자문기관임을 확인하였으며 아시아제국에

정부적차원의 기술협조 기관으로 계속 활동해줄것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했다.

본 이사회의에서는 지난번 한국건축사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멘도자회장과 로널드프의 한국방문에 대한 소감발표도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활동상황과 우리협회의 역사, 건축사의 활동, 설계작품의 역사적 배경등 회원국 대표에게 상세한 한국의 소개와 보고를 했으며 앞으로 아시아제지역

건축사활동 단체로서 또한 전문기술자로서 참가하게됨에 따라 한국의 설계실력을 인정해야 할 것 이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었다. 본인은 여기서 우리협회가 ARCASIA의 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뜻을 명료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역시 우리도 ARCASIA와 함께 활동할 결의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되었다. 금번 이사회의에서는 새회장에 말레이시아 건축사인 케네드·양 박사(DR. Ken-neth young)를 뽑았으며 이.회장이

앞으로 1987년 1988년 2년간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ARCASIA는 이처럼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즐거운 사교적 행사가 결여되지기도 한다. 우의와 친교관계가 형성된 카텔파티, 초청회사와의 만남, 각국대표들 끼리의 사교 등 오래도록 유대를 지속시킬 많은 부수행사들이 있었다.

건축사들의 이런 모임에는 참으로 숭고한 목적이 깃들여 있으며 제 2회 건축사회의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것이 입증되고 있었다. 제 3회 아시아건축사 회의는 한국에서 해줄것을 요청받았으며 본협회 오웅석회장은 인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되어 반갑다는 인사말과 우리의 협회에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이사회의에서 다루었던 교환교수안건과 ARCASIA신규 회원국에대한 조건은 다음에 원문으로 소개한다.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IE)

금번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아시아 건축과 학교교육에 대한 서로의 정보교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 건축사협회는 이영일 연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 참석했었다.

이 교육 위원회에서는 학생 잼버리 (Jamboree) 활동과 앞으로 ARCASIA의 장래를 이어나갈 학생 교육에 대한 협의를 주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각국의 건축과 학생이 자국내에서 어떠한 교육적 배경을 갖고 공부하여 몇년후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건축사가 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우리는 회의에 임하기 전에 편지로 요구해온 바에 따라 본협회 연수위원회 위원이신

아카시아 가입회원국에 대한 조건 ITEM 6.05 OF AGENDA CRITERIA FOR MEMBERSHIP TO ARCASIA (amended 17/9/86)

1. The applicant must be a membership organisation to which only architects and those aspiring to be architects can belong as members.
2. The applicant or ganisation must have a constitution or a set of objectives that represents the professional aspirations of architects.
3. Membership to the applicant organisation can only be effected upon compliance with the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 practice experience required for an architect.
4. The applicant organisation must have a presiding leader who is elected by its members and who shall represent the organisation in Arcasia council and its other activities.
5.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towards the collective professional and societal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the architects of the country and must be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as having that status.
6. The regular members of that organisation must be professional architects whose qualifications are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7.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ofessional ethnics for its members eg. a Code of Conduct and Ethnics.
8.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professional competence i.e. it must be vigilant on the competence and standard of performance of its members and shall take punitive action on those who do not fulfill such standards.
9. The organisation must subscribe to the objectives of ARCASIA.
10. The organisation must be financially sound and undertake to pay its subscriptions to ARCASIA.
11. The organisation must not be a member of any other organisation that has objectives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ARCASIA.
12.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architects eg. architectural education policy for the country, the conducting of examinations in the professional registration of architects in that country.
13. The organisation must have "learned society" responsibilities ie. seek to advance the body of knowledge of architecture and its development.
14. The organisation must be recognised by its own country Government as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the architects that countr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연세대 박영기교수가 건축과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작성해주어 그것을 ARCASIA회원국에 배포했었다. 물론 우리나라 건축과 교육전반에 걸친 과목과 학점배점과 4년간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필수과목과 교과과정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정도 함께 작성해서 각국에 배포 했다.

교육위원회의는 ARCASIA에 속한 한 활동단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원칙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인정한 부대 사업만을 교육위원회 사업으로 규정하고있다. 교육위원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매년 ARCASIA의 이사회의가

개최되기전 개최지에서 회의를 하며 총회원국의 50%이상이 참가해야 정족수로 회의가 성립되도록 되어있다. 금번도 회장엔 역시 스리랑카의 건축가이며 대학교수인 구랏나트치씨가 만장 일치로 당선 됐다.

이교육 위원회의 회의에서 이영일위원장은 우리나라 학제와 건축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내설명을 행하였으며 각국 나라의 대표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문서로 또는 회의중에 전부 회신해주는등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이번 교육위원회의에서 토의됐던 제일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잼버리행사는 계속하기로 결의

했으며

둘째: 학생들 방학중 학생스스로 희망한다면 각국의 환경, 사회교육, 건축예술의 상태를 공부할수 있도록 각국협회에서 적극도와줄것에 합의했고, (6명한)

셋째: 각국의 교육프로그램(Program)을 상호 매년 교류할 것에 합의했고, 넷째: 학교를 졸업한 학생스스로 취업길을 택하기전 에서 학생의 수만큼 교환해서 생활비만 제공하여 훈련의길을 터줄 수 있는길을 서로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학생작품교류전에 적극참여하고

여섯째: 각국 개업건축사의 타국여행에 협력할것 등에 합의했다.

각국의 대표단 참석명단

OCTOBER 8-13, 1986

KUALA LUMPUR, MALAYSIA

ARCASIA MEMBER/ OBSERVER INSTITUTE	7TH COUNCIL MEETING		ACA-2	FORUM FORUM 3
	OFFICIAL DELEGATES OFFICERS/ADVISERS	ALTERNATES OR OBSERVERS		
1. UAP – Philippines	F. Mendoza-Arcasia Chairman R. Tobia-Arcasia Hon. Sec./Hon. Treas. C. Canchela M.C. Simpliano-ACAE		F.M. Mendoza-Session Chairman C.V. Canchela-Panellist F.L. Hong-Speaker	M. Sempliciano-presenter
2. IIA – India	R.S. Khambatta-Arcasia Deputy Chairman Sirish Desphande-ACAE		R.S. Khambatta-Session Chairman A.P. Kanvinde-Speaker	Prof. Sirish Desphande- presenter
3. PAM – Malaysia	Haji Abdul Majid Dr. Ken Yeang-ACAE David Teh-ARCASIA Deputy Chairman Kington Loo-ARCASIA Adviser		Haji Abdul Majid-Session Chairman John Koh-Panellist Kington Loo-Speaker David Teh-Conference Chairman	Dr. Ken Yeang-Speaker Jimmy Lim-Panellists Ruslan Khalid- presenter
4. IAP – Pakistan	Akeel Bilgrami Dr. Pervaiz Vandal- ACAE	Shahab Ghani Khan	Arshad Abdulla-Panellist	Zaigham Jaffery- Panellist Arshad Abdulla- Presenter
5. KIRA – South Korea	Woong Suk Oh Young Il Lee-ACAE	Kee Duk Song Joseph Kim	Joe Won Cho-Panellists	Woo Sung Kim- Presenter
6. ASA – Thailand	Prof. Songkoon Atthakor- ARCASIA Deputy Chairman Pracha Suk Udom- ACAE		Prof. Songkoon Atthakor-Panellist	Sumet Jumsai-Speaker Mati Tungpanich- Presenter
7. SLIA – Sri Lanka	Lala Adithiya-Past Chairman P.G.K. Fernando Lochi Gunaratna – ACAE Chairman	Lakshman Alwis	P.G.K. Fernando-Panellist	
8. SIA – Singapore	Yang Soo Suan Chia Kok Leong		Yang Soo Suan – Speaker	Meng Ta-Cheang – Panellist

학생 JAMBOREE 대회

ITM (Institute of Technology Malaysia)의 주최로 14개국의 학생 38명이 참가한 본학생 Jamboree에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2인의 학생을 대표로 파견, 숙소인 ITM의 교정에 머물면서 10월 9일(목)에는 건축과 학생 교육에 대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고, 오후에는 각국의 건축과 학생들이 제작해온 자국건축물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 국가의 교내 건축Program을 소개하는등 많은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본건축사 대회기간중 함께 총회에 참석했으며 말라카(Malaca)에 여행, 그나라 고건축에대한 견학을 했다.

이학교는 ITM의 건축과가 주관하여 행사를 치렀는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국내에서도 25km떨어진 곳에 위치는 아주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캠퍼스내에서 있었다. 학생들은 자기나라 학교의 자랑, 학교에서 가져온 책자교환, 교과과정 비교, 손수 만든 설계 작품의 비교, 그들 건축과 학교의 문제점과 앞으로 지속해가야할 학생 잼버리의 방향제시 등등 많은 숙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 학생들은 지방특색의 인식과 학생교환의 뜻과 각국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등 서로에대한 학생들스스로의 판단에 많은 교훈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이 학생 잼버리는 ARACASIA 교육위원회가 존속하는한 계속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학생 Jamboree 의 Program을 갖는 목적은 첫째, 아시아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재주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으로부터 접하는 건축물과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얻는 특수성에 익숙해 지기를 바라며 둘째는 자국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과 제반문제점들과, 타국이 접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건축가를 육성하기위한 촉진제가 추출되기를 바라고

각국의 대표단 참석명단

OCTOBER 8-13, 1986

KUALA LUMPUR, MALAYSIA

ARCASIA MEMBER/ OBSERVER INSTITUTE	7TH COUNCIL MEETING		ACA-2	FORUM FORUM 3
	OFFICIAL DELEGATES OFFICERS/ADVISERS	ALTERNATES OR OBSERVERS		
9. HKIA - Hong Kong	Ronald C.Y. Poon - ARCASIA Adviser Edwin Wong James Kinoshita			Ronald C.Y. Poon - Session Chairman James Kinoshita - Presentor
10. IAB - Bangladesh	Mabub Haque Haroon Ur-Rashid			Bashvirul Haq
11. IAI - Indonesia	Adhi Moersid Mochamad Danisworo			Suwondo B. Sutedjo
12. Chinese Architects (Beijing)	Dai Nian Ci Wu Liang Yong Chen Zhanxiang	Three other delegates		Chen Zhanxiang - Panellist
13. Chinese Architects (Taipei)	Kun-Nan Hsu Yu Ming Kuo - ACAE	Tze Hwan Chung		Haigo T.H. Shen- Presentor Joshua Jih Pan- Presentor & Panellist

COUNTRIES ARCASIA GUESTS	7TH COUNCIL MEETING GUEST DELEGATES	ACA - 2	FORUM 3
1. Japan		Dr. Takekuni Ikeda-Speaker	Mr. Hiroyasu Higuchi and Ms. Reiko Hayashi of Team Zo-Speakers
2. U.S.A.		A. Eugene Hohn-Speaker	
3. AUSTRALIA		John Davidson- Panellist	
4. UNITED KINGDOM		John A. Wells-Thorpe- Panellist	
5. NIGERIA		Dr. Wale Odeleeye- Panellist	

세째 : 아시아지역내 전문기술용역
설계자로 내부의 인사교류를
지속하면서 건물특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하며
네째 : 아카시아와 ACAE(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아 건축학도들 사이에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래각국의 협회
발전에 그들이 기여토록하며
다섯째 : 우리를 가운데에서 다음세대를
이어주는 실존의 인물로 우리자신들의
실존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한것 등에
금회 Jamboree 의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회화에 자신들이 없어서
의사 소통에 애로가 있었고 학생
스스로도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 이루 다 표현 못하여 큰
애로를 느꼈다고 했다. 차기회의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해줬으면 하고 느끼는 바이다.
제 3회 아시아건축사 협회는 서울에서
1988년 11월초에 개최될 제 3회
아시아건축사 대회는 서울에서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최할것으로 최종 합의
했다.
우리는 아카시아의 초년생협회이고
좀더 선배국가의 활동을 연구한
천천히 개최국이 될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으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ARCASIA회장단의 강력한 추천으로
오웅석회장이 최종 승인 발표를하기에
이르렀다. KIRA가 제 3회 아시아건축사
회의를 한국에서 해야한다는 그들
주장엔 자기들 모두가 한국에 가보고
싶고, KIRA는 자체의 협회건물이 있어서
타국의 경비지출에 절감이 되며,
기후의 온화함, 4절기의 분명함,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자랑 등을 들고
있었다.
더욱이 최고의 회원수를 포용하는
협회로 자랑스러운 자체 건물이나
1년에산액만도 타회원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금액이라하여 이들이
적극 한국내에서 제 3회 아시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제 2 회 ASIA 건축사 회의 목차

10월11일 첫째날

회의제목 : STRATEG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SIA.

첫째연사 : Eugene Kohn, 미국인건축사

연설제목 : Marketing of
Professional Services

둘째연사 : DR. Takekuni Ikeda,
일본인건축사

연설제목 : Marketing of
Professional Services

10월12일 둘째날

세째연사 : Dato Kingtou Loo,

말레이시아인, 건축사

연설제목 : The State of the profession

네째연사 : Yang Aoo Suan, 싱가포르인,
대학교수

연설제목 :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

다섯째연사 : A. P. Kavinde

연설제목 : Different style of practice

여섯째연사 : Froilan L. Hong

연설제목 : Different styles of practice

10월 13일(월) 세째날

일본인, 일본동경에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일곱째연사 : Mr, Hiroyasu Higushi

일본인, 동경에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Atelier Zo회사의 설계 주역

Miss Reiko Hiyashi의 자기들 작품

세계에 대하여 논평·비평 그리고

건축적인 경험을 발표했다.

여덟째연사 : Sumet Jumsai 박사

(타일랜드인)의 자기가설계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아홉째연사들 13명을 위한 제목 :

“ARCASIA Forum on Design Dissection
in Asian Architecture”

각국의 전통 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의

설계 방식에 대한 Slide show와

설명을 곁드린 자국건축에 대한 Forum

이 진행됐다. 각국13명의 대표들에 의해

自口의 설계작품 Presentation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우성 회원의
아주 멋진 Multivision Slide Show를
진행했다. 모두가 진지하고 많은
찬사를 들었다. 이번 회의의 꽃이라
할만했다. 총21명의 연사가 출동한
셈이다. Panelist까지 합하면 33명의
연설자들이 금번 2회 Asian Architect
Congress를 빛내 주려고 Kuala
Lumpur에 왔던것이라 생각된다.

제 3회 Asian Architects Congress를
대한 건축사 협회가 1988년 10월중진행
하기로 결정된 지금 우리 협회가
(가). 무엇에 대한 회의를 할것인가?
(나). 어떻게 이런 국제회의를 진행
할것인가?
(다). 어떠한 발언자가 선택되어야하나?
(라). 전국의 건축사들 모두에게 유익한
회의가 되기위해서 어떻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까?
(마). 혹시 전국의 회원이 이런
국제회의를 왜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관해야 하느냐고 시대에 뒤진 예기로
호응을 안하면 어떻게할까 하고 몹시
마음조려진다. 이제껏 실무의 일선에서
일해온 필자로서는 좀더 전국의 뜻있는
회원 모두가 이번 국제회의에 모두
합심해서 성공적인 회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희망한다. 우리가 이뤄놓은
건축사 작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전통
생활방식을 서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건축설계 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방식의 연구를 위해서도 이런 국제적
회의를 좀더 연구 발전 시키며 우리의
전문용역 건축사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연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우리의 3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뜻있는 회원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마치고자한다. 앞으로
건축사지에 한두편 2회아시아 건축사
회의의 연사 논문을 번역 소개해
드릴것을 약속하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규준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시 : 1986. 12. 13(토) 13:00-17:40

장소 : 건설회관 2층 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